



“ 부처님의 가르침 지도자 생활 의지 ”

[동국대 농구부 감독 이호근]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농구대잔치 결승전, 동국대가 일으킨 '돌풍'은 중앙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호근(44) 동국대 감독은 코트에서 내내 소리 지르다 결국 목이 쉬었다. 경기 종료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선수들을 독려하며 힘이 돼주기 위해서다. 결과는 26점차 패배로 끝이 났다. 이 감독은 코트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얼싸 안으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한마디를 짧게 던졌다. "고생들 했어, 암~".

그래도 동국대 농구부는 이 대회에서 큰 성적을 거뒀다. 1983년 농구대잔치가 시작된 이래 25년간 단 한차례도 4강에 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의 준우승은 동국대에겐 큰 쾌거였다. 당시 이호근 동국대 감독은 "여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등 힘든 훈련을 견뎌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준우승 소감을 피력했다.

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모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낙안중학교 3학년때 키가 크다는 이유(당시 187cm)로 농구공을 처음 잡기 시작한 이 감독은 1980년대 중반 잘나가던 실업팀 현대에서 센터로서 명성을 날렸다. 1990년부터 3년동안은 국가대표로 뛰기도 했다. 이후 95년 유니폼을 벗은 뒤 현대전자 영업과장으로 잠시 벼타이를 매기도 했다. 일 잘한다는 명성도 자자했지만 결국 마음속의 고향인 농구 코트가 그리워 다시 돌아와 용인대에서 지도자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신세계 여자 농구단 코치로 옮겨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문규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4회 우승 신화를 일궈내기도 했다. 하지만 남자 프로농구 전자랜드 코치로 동지를 옮긴 뒤 쓰러림을 맞았다.

"농구 인생의 최대 위기였지요. 항상 이기는 것만 경험하고 살아 왔는데 연패를 당하



에도 항상 염주를 차고 다녔으며, 흑석동도 립시를 오랫동안 다니며 신행 생활을 했다.

"운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에게 큰 의지가 됐습니다. 선수시절 제가 코트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 변화가 없이 의연했던 것이 성격 탓도 있겠지만 불교의 중도적 가르침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지요."

이 감독은 이런 불교의 힘을 알기에 선수들과 함께 시간 날 때마다 학교 내에 있는 정각원을 자주 찾아 법문도 듣고 명상도 한다. 특히 시험이 있기 전에는 꼭 찾아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는다.

모교에서 승승장구하는 이 감독에게 또 하나의 배부름 즐거움이 있다. 자녀 모두가 농구 유망주로 활약하고 있다. 아들 이동엽(용산중3)은 농구 명문 용산고

주장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팀을 소년체전 정상에 올려놓고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농구공을 잡은 지 1년도 채 안된 딸 민지(선일여중1) 양은 지난 8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배에서 선일초등학교를 1위로 이끌며 역시 최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딸아이는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좋다니 못 말리겠더라 구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 합숙 훈련을 해서 저까지 시험이 있으면 거의 네 집 살림을 합니다(웃음)." 그래서 최근

이 감독은 거의 혼

자 있는 아내를 위해 동국대 근처인 장중동으로 집을 옮겼다.

"1985년 당시 제가 2학년이었을 때 동국대가 우승을 한 번 해보고는 아직 정상을 밟은 적이 없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서 올해는 꼭 후배들과 함께 대학농구의 정상에 서보고 싶습니다."

글=김주일기자
사진=박재원기자

지난해 농구대잔치 준우승 신화 모교서 지도자 생활 마치고 싶어

2006년 중반부터 모교인 동국대 코치를 맡고 있다가 지난해 6월부터 사령탑이 된 이호근 감독. 취임이후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팀 성적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종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전국체전과 2차 대학연맹전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2005-2006 시즌 전자랜드 감독 대행시절 팀이 12연패의 늪에 빠지는 바닥을 경험한 터라 이 감독이 모교에서 펼치는 '제2의 성공'은 더욱 값지고 빛이 났다.

이 감독은 "여자와 남자 프로감독을 다 해봤던 경험이 현재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전술적인 부분이나 수비를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동국대

니 눈 앞이 캄캄하더라도요. 회복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당시 실패에서 배운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웬만해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이 몸에 배었거든요."

이 감독은 이 모두가 항상 자신을 위해 고향인 순천 송광사에 다니며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불심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낙안 읍성 근처가 고향인 이 감독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때문에 절에 자주 다녔다. 선수 시절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봉 공 사